

지역 매아리

정읍시,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재난안전교육 실시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최근 정읍시청소년수련관에서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110여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어린이집을 비롯한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들에게 실시됐다. 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대형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최초 발견자의 신고 후 긴급구조기관이 도착하기 전 5분 내외의 골든타임 동안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신속한 대피, 피난조치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문화 확산과 재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내년도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확대를 위해 안전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작은도서관  
겨울방학 문화프로그램 운영

정읍시 관내 작은도서관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아 이용자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기획하여 운영한다. 북면작은도서관에서는 책놀이, 상동작은도서관에서는 세계문화여행과 전통놀이, 고부작은도서관에서는 전통 음식 체험, 수북작은도서관에서는 동물교감, 웅달작은도서관과 수성작은도서관에서는 전통놀이, 감골작은도서관에서는 자아 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산작은도서관에서는 한지공예, 실버작은도서관에서는 창의감성 요리교실, 꿈꾸는작은도서관에서는 영화 상영과 책놀이, 다문화작은도서관에서는 책놀이와 세계요리, 책향기작은도서관에서는 도서관학교를 운영한다. 작은도서관은 책과 사람의 거리를 좁혀 생활 속에 독서 습관 정착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와 어른,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책을 매개로 만난 이용자들은 자유롭게 책모임을 만들고 재능기부를 통해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 '의인'

고창군 유동운씨 희생과 봉사정신 귀감 '의향 고창인' 표창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3일 고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전다짐의 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인명을 구조하여 나눔과 봉사, 헌신의 사회정의를 실현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유동운 씨에게 '의향 고창인' 표창을 수여했다. 유동운씨는 지난달 8일 오후 택배 트럭을 운전해 고창군 상하면 석남리 석남교차로 인근을 지나던 중 도로 옆 논으로 추락해 불타고 있는 승용차를 발견했다. 사고 차량에서 경적이 울리고 있는 것을 본 유씨는 불길에 휩싸인 차량 문을 열고 다친 운전자를 구조했다.



고창군이 3일 고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전다짐의 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인명을 구조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유동운씨에게 '의향 고창인' 표창을 수여했다.

불이 난 차량의 폭발에 대비해 운전자를 차량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옮긴 유씨는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자신의 군부복을 덮어주고 의식을 잃지 않도록 말을 건네는 등 차분하게 대처했다. 119 구조대 도착 후 유씨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유씨의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은 각박해져가는 사회 속에 한 줄기 빛처럼 언론과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알려지게 됐다. 유씨는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홀로 어르신 등을 찾아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마을과 지역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화합의 고창군을 만드는 데 기여해왔다. 유동운씨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차량 안에 사람이 있어 이것 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이 바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상황이 닥치면 누구나 저처럼 했을 것"이라며 겸손한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당연한 일인데 특별한 일처럼 주목을 받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다"며 "우리 사회가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기꺼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회가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기상 군수는 "의향 고창의 의미를 드높여준 유동운씨의 용기 있는 행동이 널리 귀감이 되고 있고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었다"며 "이렇듯 망설임 없이 어

려운 사람을 위해 손을 내미는 군민들이 있어 나눔과 봉사로 따뜻한 고창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동운씨의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을 격려하기 위해 LG복지재단에서는 '국가와 사회정의를 위해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는 의미로 제정된 'LG의인상'을 수여하기로 했으며, 고창소방서에서도 지난 달 19일 화재예방활동 및 인명구조 유공으로 표창장을 수여했고, CJ대한통운에서도 자체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정읍시 · 정농바이오, 첨단과학산업단지 투자협약 체결

정읍시는 3일 시청에서 유진섭 정읍시장, ㈜정농바이오 윤용희 대표이사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과학산업단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농바이오는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2019년까지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4,248.7㎡(1,285평) 부지에 1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금번 투자로 1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정농바이오는 2012년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전남 곡성에서 본사를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정농바이오는 첨단과학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설하여 자체 장비와 인력에 위치한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의 장비를 이용하여 조식료 등에 첨가하는 미생물 보조사료제, 미생물 배지,

미생물 발효제 등을 생산·판매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유진섭 정읍시장은 "첨단과학산업단지에 투자를 결정해 주신 ㈜정농바이오에 감사드린다"며, "㈜정농바이오가 이번 정읍공장 신설을 발판으로 농축산용 미생물분야의 선두기업이 되어, 단지 내의 국책연구소를 비롯한 인근의 여러 지원시설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성공적인 모델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현재 40여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93.3%의 MOU체결율을 달성했으며, 전북도·3개 국책연구소·LH·전북연구개발특구 등과 연계하여 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진여부지 분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주요 사업 스토리텔링 중요"



권익현 부안군수는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12월 주요 사업에 대한 스토리텔링 강화 등을 주문했다. 권익현 군수는 "과거 고등학교 기술시간에 버스는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라는 선생님 질문에 한 학생이 '오라이오'라고 답한 적이 있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의 사회적 문화와 향수를 담은 대답이지만 정답을 넘어 스토리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익현 군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답만은 소용이 없다"며 "위도는 울도국, 수성당 역시 새로운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 정답에 스토리를 입혀 새로운 브랜드와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또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의미가 없다"며 "부안만의 차별화된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면 더 두 발 앞서면 개척자가 된다"며 "주요 사업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혁신과 개혁으로 완전히 새로운 부안을 실현하자"고 언급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안전한 부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개최 위해 '맞손'

부안군-부안경찰서,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업무협약 체결

부안군은 부안경찰서와 3일 3층 간부회의실에서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임성재 부안경찰서장 등을 비롯해 각 기관 관련부서 간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성공개최를 위해 상호기관 의 요청 시 각 기관의 자원활동 적극 활용, 필요 시 세계스카우트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상호기관의 다각적인 지원 방안 모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부안군과 부안경찰서는 협약내용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질서있는 환경에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이끄는 초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성공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며, 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사업에 부안경찰서의 동참은 앞으로 지역의 잼

버리 불 조성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또 임성재 부안경찰서장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경찰 본연의 역할 외에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5회 부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2023년 8월 중에 12일간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제1지구에서 169개국 5만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보건소,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 캠페인 실시

정읍시보건소(소장 문상용)는 최근 '11회 세계에이즈의 날'을 맞아 만남의 광장 일대에서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에이즈 바로 알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에이즈 예방 및 감염인 판전·차별해소'라는 주제로 실시됐으며, '일상생활에서는 감염되지 않고, 바로 알면 예방할 수 있다'는 에이즈 바로 알기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됐다. 에이즈의 감염경로는 97%가 성 접촉을 통한 감염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감염인이 사용한 주사기 공동 사용,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수혈, 감염된 여성의 임신·출산·모유 수유 등으로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즈는 감염초기에 감기, 몸살 등의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나지만, 이것만으로는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보건소 관계자는 감염될 만한 의심 행위를 했다면 '12주 후'에 감염여부 검사를 권장하며, 검사 장소는 모든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특히 보건소에서는 무료익명검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보건소는 에이즈 바로알기 캠페인을 실시해 에이즈를 예방하고, 감염인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소는 에이즈 감염의 주요경로인 성 접촉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고자 콘돔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684-8960  
www.gangsanwine.com